

◇ 쟁 점

창조-진화 논쟁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박 희 주
한림대학교

최근의 창조-진화 논쟁은 과학, 종교, 교육, 법, 과학철학 등 여러 분야가 연관된 복합적 논쟁이다. 따라서 이들 각각의 분야로 나누어 그 내용상의 쟁점을 중심으로 이 논쟁을 분석할 수도 있다.¹⁾ 그러나 이 글에서는 이러한 이슈별 쟁점 분석보다는 역사적 관심에 보다 충실하여 창조-진화 논쟁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를 개괄하는 해석사적 관점을 택하기로 한다.

창조-진화론 논쟁을 넓게 해석하여 진화론을 둘러싼 종교적 논쟁으로 규정하면 분석대상 국가와 시기가 다양해지겠으나, 이를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의 반진화론 운동이 결과한 논쟁으로 본다면 주된 분석대상은 20세기 미국으로 좁혀진다. 여기서는 후자를 택하기로 하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1920년대 발생하여 세계적 이목을 끌었던 '스콧스 논쟁'과 60년대 이후 부활해 80년대 미국 전역을 떠들썩하게 했던 '창조-진화 논쟁'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1. 스콧스 논쟁에 대한 해석사

먼저 스콧스 논쟁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하다. 1859년 「종의 기원」 출간으로

1) 예를 들어 진화론을 옹호하는 과학자들의 반응은 Laurie R. Godfrey (ed.), *Scientists Confront Creationism* (New York: W. W. Norton, 1983), 진화론과 동등한 교육기회를 창조론에 부여하도록 규정한 소위 "동등시간법(Equal-Time Law)"을 둘러싼 법적 논쟁은 Marcel La Follette (ed.), *Creationism, Science, and the Law: The Arkansas Case* (Cambridge: The MIT Press, 1983), 창조-진화 논쟁을 둘러싼 과학과 종교간의 관계는 Langdon Gilkey, "Religion and science in an advanced scientific culture," *Zygon* 22(2)(June 1987), pp. 165-178, 과학철학적 논쟁은 Michael Ruse, *But Is It Science: The Philosophical Questions in the Creation/Evolution Controversy* (Buffalo: Prometheus Books, 1988)를 보라.

미국 과학자 사회에 소개된 진화론은 당시 인간을 포함한 생물의 기원에 대해 지배적 답변이었던 '특별 창조설'을 급속히 대체하기 시작하여 1880년경에 이르러서는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이를 받아들이게 된다. 이 추세는 과학 교육에도 곧 반영되어 이때쯤 진화론은 처음으로 고등학교 생물 교과서에 등장한다. 20세기 초 미국 중등교육의 급속한 팽창에 힘입어 진화론은 광범위하게 미국사회에 보급되며 이에 위협을 느낀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 반진화론 운동을 일으킨다. 세번이나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추대되었던 William Jennings Bryan이 이 운동을 이끌며 급기야 테네시(1925), 미시시피(1926), 아칸소(1928)주에서 진화론교육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반진화론법이 통과된다.

테네시주에서 반진화론법이 통과된 직후 미국시민자유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이후 ACLU로 약칭)은 이 법의 실효성을 시험할 것을 선언하고 나서고 이에 협조하기로 한 John Thomas Scopes라는 교사가 진화론을 교실에서 가르치는 사건이 발생한다. 이에 테네시주가 즉각 스콧스를 고발하고 ACLU가 맞서 변호하는 회대의 재판이 1925년 7월 데이튼이라는 소도시에서 열리고 결국 스콧스측이 100달러 벌금형을 선고받음으로써 이 논쟁은 일단락된다. 이 재판 과정에서 ACLU측 변호사 Clarence Darrow와 역시 변호사 출신이었던 Bryan이 맞붙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Bryan은 재판이 끝난 3일 후 돌연사한다. 스콧스 재판, Darrow와 Bryan의 격돌, Bryan의 돌연사 등이 반진화론 운동에 대한 이후 역사 해석의 주된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스콧스 재판에 대한 자유주의적 해석은 이 사건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의 주류를 이루며 1920년대의 반진화론 운동에 대한 대중의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이 해석의 기본적인 구도는 다음과 같다. 1900년대 이후 상승세에 있던 근본주의 운동은 스콧스 재판을 통해 모더니즘과 격돌하며 결정적인 타격을 입고 이후 쇠퇴하게 된다. 한마디로 스콧스 재판은 모더니즘의 승리인 동시에 반진화론으로 대표되는 근본주의 운동의 패배이다. 넓게는 근본주의 운동의 부침과 시점, 좁게는 Bryan과 Darrow의 충돌, Bryan의 죽음 등은 모두 이러한 구도 하에서 해석되었다. 이러한 해석의 주요 사항을 간추리면 대략 다음과 같다.

- 반진화론으로 대표되는 근본주의 운동은 스콧스 재판에서 그 절정에 달함.
- 스콧스 재판은 근본주의와 모더니즘의 격돌의 장이었으며 이 싸움에서 근본주의가 패퇴.
- 근본주의 운동은 스콧스 재판을 기점으로 쇠퇴. 다시 말해 스콧스 재판은 근본주의 운동의 운명을 가름지은 사건.
- 스콧스 재판의 하이라이트는 Darrow와 Bryan의 격돌. 근본주의 신앙에서 출발한

Bryan의 반진화론은 Darrow의 이성 앞에서 무참히 깨어짐.

- Bryan에 대한 Darrow의 심문은 Bryan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이는 그의 사망의 중대한 원인으로 작용.
- 법적으로는 진화론이 패했을지 모르나 재판과정에서 근본주의의 반과학, 반지성, 반근대성에 쏟아 부어진 언론의 공격은 이의 쇠퇴에 결정적으로 기여.
- Bryan의 죽음으로 반진화론 운동은 결정적 타격을 입으며 이후 급속히 쇠퇴.

이러한 자유주의적 해석은 20년대의 진화론 논쟁에 직접 참여하였던 저널리스트, 과학자, 신학자들의 해석과 반응에서 비롯된다. 당시 대표적 독설가이며 사회비평가인 *Baltimore Sun*의 H. L. Mencken은 미국 전역의 신문에 광범위하게 게재되는 그의 논설을 통해 반진화론 운동과 스콧스 논쟁을 조롱하였으며, 미국자연사박물관장인 고생물학자 Henry Fairfield Osborn은 *The Earth Speaks to Bryan*을 출판하며 진화론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나섰다. 시카고 대학 신학부 학장이며 대표적 자유주의 신학자의 한 사람인 Shailer Mathews는 근본주의와 모더니즘을 서로 다른 논리적 지평 상에 존재하는 개념체제로 파악하며 현대사회에서의 근본주의의 부적절성을 강조했다.²⁾

1920년대 말경이면 진화론 논쟁은 언론매체에서는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되며 이제 논쟁 참여자들의 해석은 이 논쟁에 대한 비평가들의 분석으로 대체되기 시작한다. 이후의 해석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끼친 저술로 Frederick Lewis Allen이 1931년 출판한 *Only Yesterday: An Informal History of the 1920's*를 들 수 있다.³⁾ 지식인을 위한 교양잡자인 *Harper's*의 부편집인이었던 Allen은 언론인 특유의 선정주의로 이 책을 집필하여 백만부 이상이 팔리는 대성공을 거두며 이후 스콧스 논쟁의 해석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 그러나 흥미 본위의 이 책은 앞서 언급한 자유주의적 구도 하에서 사건을 극화시킴으로써 그 제목에 포함된 '역사'와는 달리 20년대의 역사, 특히 스콧스 논쟁 부분을 심하게 왜곡하였다. 스콧스 논쟁의 대중적 이미지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으나 역사적 사실에 대한 묘사를 심하게 왜곡한 또 다른 경우로 Jerome Lawrence와 Robert E. Lee의 *Inherit the Wind*를 들 수 있다. 이 책은 1955년 브로드웨이에서 처음 연극으로 올려졌으며 1960년 영화화되어 수백만 명이 관람하였는데, Bryan을 우스꽝스러운 고집불통의 거드름쟁이로, Darrow는 시민자유

2) Henry Fairfield Osborn, *The Earth Speaks to Bryan* (New York, 1925); Shailer Mathews, "Fundamentalism and Modernism: An Interpretation," *American Review* 2 (January-February 1924), pp. 1-7.

3) Frederick Lewis Allen, *Only Yesterday: An Informal History of the 1920's* (New York: Harpers & Brothers, 1931).

신성한 수호자로 묘사한 이 영화의 비사실성은 심지어 근본주의자들에게 비우호적인 비평가들조차 눈살을 찌푸리게 할 정도였다.

반진화론적 근본주의 운동에 대한 본격적인 역사서는 50년대 등장한다. Norman Furniss의 *The Fundamentalist Controversy*가 가장 대표적인데 지금까지도 기독교 근본주의 연구에서 필독서의 하나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책에서 저자는 근본주의를 1차대전 후의 반지성주의, 반공산주의, 반모더니즘과 연관시켜 설명하고 있다.⁴⁾ 근본주의에 대한 50년대의 자유주의자들의 비판은 당시 공산주의를 마녀 사냥하듯 몰아쫓던 맥카시즘에 대한 반감과 맞물려 증폭되었다. 이들은 근본주의를 종교적 맥카시즘으로 규정하며 통렬히 비판하였던 것이다.

스콧스 재판 이후 60년대에까지 이르는 자유주의적 해석은 대체로 그 궤를 같이하는데 반진화론 운동은 현대세계와 과학에 대한 두려움, 1차대전의 참상에 대한 반동, 교육과 사회를 근본주의의 이상과 부합하도록 교정하려는 욕구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규정하며 현대 사회에서 그 영향력이 죽어가는 운동으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60년대 들어 반진화론적 근본주의는 활기를 얻고 다시 부활하기 시작하며 이는 기존의 자유주의적 해석에 수정을 가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가장 주목할 만한 60년대 수정주의 역사가로 Paul Carter를 꼽을 수 있는데, 그는 근본주의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를 곧 쇠락할 주변적인 사이비 신앙이 아닌 수백만의 추종자가 따르는 강력한 신념으로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한다. 또한 스콧스 논쟁 이후 근본주의가 무너졌다는 주장은 근본주의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연구하지 않은 자유주의 학자들이 만들어낸 판에 박힌 해석이라고 일축하며, 오히려 근본주의가 보이는 지속적인 활력에 주목하여 이를 가능케 한 요인을 근본주의 운동에서 찾아내는 것이 근본주의 연구에 있어 주요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그는 제언한다.⁵⁾ 근본주의의 이념적 뿌리를 추적한 Ernest Sandeen은 근본주의 세력과 이념의 근원으로 무식한 남부의 시골문화를 지목한 기존의 해석과 달리 근본주의는 종말론적 신학과 관련된 당시 보편적 믿음이었으며 따라서 지적 정통성을 지닌 운동이라고 주장한다.⁶⁾ 60년대 시작한 다양한 수정주의 해석은 George Marsden이 1980년 출판한 *Fundamentalism and American Culture: The Shaping of*

4) Norman Furniss, *The Fundamentalist Controversy, 1918-1931* (New Haven, 1954), pp. 3-44.

5) Paul Carter, *The Twenties in America* (New York: Thomas Y. Crowell, 1967), pp. 79-80.

6) Ernest Sandeen, *The Roots of Fundamentalism: British and American Millenarianism, 1800-1930*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0), pp. 285-289.

*Twentieth-Century Evangelicalism, 1870-1925*에서 집대성된다.⁷⁾ Marsden은 근본주의 운동의 지적, 이념적 기반을 분석함으로써 Sandeen과 함께 근본주의는 지적인 내용이 결여된 공허한 운동이라는 자유주의자들의 전제를 비판하며 근본주의 운동의 해석사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정리하면 반진화론 운동에 대한 전통적인 자유주의적 해석은 스콧스 재판, 특히 재판 중 Bryan과 Darrow의 격돌을 근본주의와 모더니즘의 대결을 대표하는 가장 상징적인 사건으로 부각시켰다. 이러한 구도 하에 아무런 지적 내용이 없는 남부 농촌의 근본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Bryan을, 그리고 모더니즘의 상징으로 Darrow를 설정한 후, Darrow의 냉정한 이성적 심문에 의해 Bryan의 맹목적 신앙이 철저히 조롱거리가 된 것으로 해석하고 이를 스콧스 재판의 하이라이트로 제시함으로써 Bryan의 패배를 곧 근본주의의 패배로 연결시켰다. 한마디로 스콧스 재판이 근본주의의 쇠퇴를 결과했다는 것이다. Bryan의 돌연사도 결국 이러한 패배의 충격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수정주의자들은 스콧스 논쟁을 자유주의적 언론이 창출한 하나의 에피소드에 불과한 것으로 해석하며 반진화론 운동의 운명에 즉각적인 그리고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는 스콧스 재판 2년 후인 1927년에 모두 13개 주에서 반진화론 법이 상정됨으로써 반진화론 운동이 그 정점에 도달했다는 사실과도 부합한다. 사인은 불분명하지만(대식가인 Bryan이 급체로 인해 사망했다는 설이 유력) Bryan이 재판의 충격으로 고뇌 속에서 죽었다는 해석은 사실과 다르며 실제 낮잠을 자던 중 평온하게 숨을 거두었다. Bryan의 죽음이 반진화론 운동의 쇠퇴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해석 역시 Bryan의 죽음은 근본주의자들에게 순교로 받아들여졌으며 오히려 반진화론 운동을 가열시킨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는 수정주의자들의 해석과 대립된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반진화론적 근본주의의 임박한 종말을 예언했던 자유주의적 해석은 60년대 이후 근본주의가 새로운 활력을 지니고 부활하여 80년대에 강력한 정치세력으로까지 부상하게 됨에 따라 수정이 불가피해졌다는 것이다.

2. 최근의 신창조론 운동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

*The Post-Darwinian Controversies*의 저자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진화론 논쟁사의 권위자 James R. Moore는 80년대 초 창조-진화론 논쟁이 미국에서 법정문제로까지

7) George Marsden, *Fundamentalism and American Culture: The Shaping of Twentieth-Century Evangelicalism, 1870-1925*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0).

비화하며 뜨겁게 달아오르자 “Interpreting the New Creationism”이란 제목의 논문을 통해 지나간 역사 속의 문제가 아닌 당장의 현실적 이슈로 다가온 창조-진화 논쟁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자신의 해석을 제시한 바 있다. Moore는 신창조론을 기성과학의 오만한 전문가주의와 기고만장한 실증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간주하나 궁극적으로는 극복되어야 될 위험한 대상으로 파악한다. 그는 신창조론의 도전이 보다 나은 진화론적 논거나 보다 무게 있는 과학권위에 의해 극복되어지리라고는 믿지 않으며, 신창조론뿐만 아니라 현재의 억압적인 사회질서의 자연성과 필연성을 주장하는 사회생물학 같은 체제옹호적 과학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자연, 인간 본성, 정치적 투쟁에 대한—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⁸⁾ 이 점에서 Moore는 맑스주의 과학사학자 Robert Young과 함께 한다. 1982년 1월 아킨소주의 창조론법이 위헌 판정을 받은 직후 발표한 “The Darwin Debate”란 글에서 Young은 근본주의의 적—사회생물학 등—은 또한 좌파의 적일 수 있으며 따라서 반창조론자들의 편에 단순히 합류하는 것은 전략적 실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진화론 논쟁에 대한 자신의 맑시스트적 입장을 조심스럽게 제시했다. 그는 우익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윤리적, 사회적, 정치적 신념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자연과학에 호소하는 것은 창조론자들이 이를 위해 성경에 호소하는 것과 전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하며 맑스주의적 접근에 가장 적절한 과학은 역사과학(the science of history)이라는 선언으로 글을 맺는다.⁹⁾

앞서 소개한 수정주의 해석의 새로운 기수 George Marsden은 창조-진화 논쟁이 한창 달아오른 1983년 *Nature*에 발표한 “Creation versus evolution: no middle way”라는 글에서 유신론적 진화론이나 점진적 창조론 등과 같은 중간적 입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논쟁이 극단적 창조론과 진화론으로 양극화되어가는 상황을 분석한 바 있다. 창세기 1-2장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며 하루를 24시간으로 해서 6일 동

8) James R. Moore, “Interpreting the New Creationism,” *Michigan Quarterly Review* 22(3)(1982), pp. 332-333. 하바드 대학의 생물학자 E. O. Wilson이 1975년 *Sociobiology: The New Synthesis* (Cambridge: Belknap, 1975)를 출판함으로써 시작된 사회생물학은 동물의 군집생활에 대한 생물학 이론을 확장시켜 인간의 사회행동에 관한 과학적 설명의 기반으로 삼는 새로운 접근이다. 사회생물학에 의하면 인간의 사회행동은 오랜 진화과정을 통해 형성되어왔으며 생물학적 유전에 의해 보전되며 전달된다. 인간의 사회행동이 많은 부분 생물학적으로 결정된다면 이러한 사회행동에 의해 유지되는 사회질서 역시 생물학적 자연성, 당연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생물학은 현 사회체제를 유지함으로써 가장 큰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기독교인의 이해를 옹호하는 이념적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을 처음부터 내포하고 있었으며 실제 80년대 레이건 체제 하에서 보수 기독교인의 정치경제적 이념을 정당화하는 과학 이론으로 원용되었다. *Sociobiology*의 출판 직후부터 사회생물학의 이러한 이념적 측면은 사회 개혁을 주장하는 좌파의 주된 공격대상이 되어왔다.

9) Robert M. Young, “The Darwin Debate,” *Marxism Today* (April 1982), pp. 21-22.

안에 온 세상이 창조되었다고 주장하는 극단적 창조론이 나오게 된 지적, 이념적 배경을 분석한 후, Marsden은 이러한 주장이 광범위하게 미국 사회에 받아들여지게 된 배경에는 생물학 이론으로서의 진화론이 그 영역을 넘어 일종의 철학적, 종교적 이념으로 기능을 하게 된 데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TV시리즈 *Cosmos*를 시작하며 천문학자 Carl Sagan이 언명한 첫마디—“우주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의 전부이며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는 현대과학의 결론이 아닌 초월적 실재의 가능성을 아예 부정하는 철학적 전제라는 점을 그는 지적한다.¹⁰⁾ Sagan의 진화론적 자연주의는 그가 작고하기 얼마 전에 출판한 *Shadows of Forgotten Ancestors: A Search for Who We Are*에 잘 드러나 있다. 이 책에서 Sagan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왜 우리는 현재의 이러한 모습과 특성을 지니게 되었는가? 인간이 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본질적 질문에 대한 해답을 시도하며 인간이 진화해온 과거로부터 그 답을 찾는다.¹¹⁾ 현대 문명에서 진화는 우주, 생명, 인간의 발생에 대한 존재론적 설명 양식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본질과 윤리에 대한 이론이 기초해야 할 “우주론적 신화”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David Livingstone의 지적은 이러한 예에서 설득력을 갖는다.¹²⁾ Marsden은 이러한 진화론적 반초자연주의라는 독선적 신화가 극단적 창조론이라는 동일한 형태의 독선적 반응을 불러들이며 창조-진화 논쟁은 양극화되었다고 분석한다.

끝으로 창조론이 일으킨 최근의 논쟁에 대해 과학학 연구자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자. 대략 세 가지로 그 반응을 나눌 수 있는데 첫째, ‘창조론은 진지하게 분석할 가치가 없는 주제이다’. 둘째 ‘창조론은 과학과 과학교육에 위협한 존재이며 따라서 그 문제점을 책임있게 비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민감한 이 논쟁으로부터 한 걸음 떨어져서 논쟁에 대한 보다 학문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첫 번째 유형의 좋은 예는 20세기 창조론자들에 관한 연구의 결정판인 Ronald Numbers의 *The Creationists*에 대한 한 서평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대학의 과학사학자인 David Oldroyd는 그의 서평에서 “왜 Numbers같은 명망 있는 과학사학자가 이런 주제의 연구에 그토록 많은 시간[15년]을 소비했을까?”라고

10) George M. Marsden, “Creation versus evolution: no middle way,” *Nature* 305 (1983), p. 574.

11) Carl Sagan and Ann Druyan, *Shadows of Forgotten Ancestors: A Search For Who We Are*(Arrow Books, 1993), p. 4.

12) David Livingstone, “Evolution as metaphor and myth,” *Christian Scholar's Review* 12(1983), pp. 111-125(Marsden, “Creation versus evolution”, p. 574에서 재인용).

이 주제의 학문적 가치에 대해 노골적인 의구심을 드러내었다. Oldroyd는 자신이 창조론자들에 관해 던질 수 있는 가장 의미있는 질문은 이들이 “미친자들인가, 사기꾼들인가 아니면 멍청이인가?”라고 단언한다. 그는 창조론을 전혀 무가치한 연구 주제로 보았으며 기껏해야 자신이 가르치던 “좋은 과학, 나쁜 과학, 사이비 과학”같은 강의에서 사이비 과학의 전형적 예로나 써먹을 수 있는 것으로 여겼다.¹³⁾

두 번째 유형은 물리학자이며 과학사학자인 Stephen Brush의 반응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는 “Finding the age of the earth by physics or by faith?”라는 글에서 지구연령이 몇 만년에 불과하다는 창조론자들의 주장은 현대 물리과학에 의해 “완전히 틀린 것으로 판명난 엉터리 주장”이라고 정면으로 공격하고 나섰다.¹⁴⁾ 1981년 미국 아칸소주에서 열렸던 창조-진화론 법정논쟁에 진화론측 전문가로 증언했던 생물철학자 Michael Ruse의 경우 창조과학이 과학이 아닌 이유를 보여주는 5가지 항목의 과학성 테스트를 법정에 제시함으로써 창조론을 패소시키는 데 결정적인 공헌을 했다.¹⁵⁾ 흥미있는 점은 루스의 증언 이후 과학 철학자들간에 과학성에 대한 이러한 실증적 카테고리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는 반론이 일며 학문적 양심에 관해 열띤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다시 말해 이중잣대를 적용한 것 아니냐는 것이었다. 또 다른 생물철학자 Philip Kitcher는 창조론을 “과학의 악용”이라고 규정하며 1982년 “과학의 악용: 창조론에 대한 반대 이유들”이란 제목의 책을 출판하기도 했다.¹⁶⁾

끝으로 창조론에 대한 이러한 공격 위주의 접근에 대해 Numbers는 *The Creationists*에서 다음과 같이 꼬집었다.

15세기 점성술, 17세기 연금술, 19세기의 골상학은 전혀 문제없이 연구를 수행하는 학자들도 20세기 창조론에 오면 분통을 터뜨리고 만다. ... 다시 말해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사람들의 기이한 사상이나 행동은 전혀 문제없이 연구하던 학자들도 창조론자라는 자신의 이웃에 대한 연구에 임해서는 대부분 학문적 이해보다는 비난을 앞세우는 것 같다. 위협스럽게 느껴지는 이 이웃에 대해 익숙해지는 것이 보다 현명한 태도가 아닌가 싶다.¹⁷⁾

13) David Oldroyd, “Review symposia: The Creationists,” *MetaScience* (1993), pp. 48-50.

14) Stephen G. Brush, “Finding the age of the earth by physics or by faith?” *Journal of Geological Education* 30(1982), p. 55.

15) Michael Ruse, “Michael Ruse: Witness testimony sheet, McLean v. Arkansas,” in Michael Ruse (ed.), *op. cit.*, pp. 300-304.

16) Philip Kitcher, *Abusing Science: The Case Against Creationism* (Cambridge: The MIT Press, 1982).

17) Ronald Numbers, *The Creationists* (New York: Alfred A. Knopf, 1992), pp. xvi-xvii.

창조론자들의 모임에 직접 참여하며 인류학적 연구를 수행했던 Christopher Toumey 역시 Numbers의 입장에 동조하는데, 창조론자들을 위험한 존재로 규정하며 “이 나쁜 놈들은 어떻게든 막아야 해”라고 소리 높여 반대하는 대부분 학자들의 태도에 대해 Toumey는 창조론자들을 악마와 같은 존재로 몰아 부치기보다는 오히려 인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¹⁸⁾

소위 젊은 지구설을 주창하는 극단적 창조론자들에 의해 주도되었던 70년대와 80년대의 창조-진화론 논쟁은 90년대 들어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중을 목표로 했던 기존의 창조론 운동과는 달리 소위 Intelligent Design이론의 주창자들은 지식인 사회를 겨냥하여 보다 세련된 논리와 새로운 전략으로 무장하여 논의의 차원을 한 단계 높였다. Intelligent Design은 기본적으로는 19세기 영국의 자연신학자 William Paley의 Design Argument를 현대적인 논의로 부활시킨 것인데 대표적 복잡계인 생명현상은 이를 고안한 초월적 지능을 전제하지 않고는 그 존재 자체를 설명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¹⁹⁾ 이들은 현대의 분자 생물학과 생화학의 발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자수준의 생명현상, 특히 고도로 복잡하게 발달한 수많은 생화학적 메커니즘을 예로 들며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로는 이러한 메커니즘의 발생을 설명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²⁰⁾ 이러한 주장은 생물개체의 거시적 진화를 분자수준에서 미시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통합된 체계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 생물학의 현 한계를 공략하며 점차 많은 추종자를 확보해가고 있다.

아칸소와 루이지애나주에서 있었던 두 번의 법정 재판에서 창조론자들이 모두 패소함으로써 80년대의 창조-진화 논쟁은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러나 90년대 들어 창조론 운동의 주도권은 보다 온건하며 지성적인 Intelligent Design 운동으로 넘어가며 창조-진화 논쟁에 새로운 불을 지폈다. Intelligent Design은 진화론적 설명에 공허감을 느끼나 생경한 기존의 창조론에 안주하지 못하는 지식층 유신론자들에게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며 창조-진화 논쟁을 새로운 국면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 20년대 반진화론 운동으로 시작한 미국의 창조-진화 논쟁은 새로운 세기를 바라보는 지금에서도 그 열기가 쉽게 식을 것 같지 않다. 창조-진화 논쟁은 결국 인간의 존재와 본성에 대한 논쟁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18) Christopher Toumey, "Review symposia: The Creationists," *MetaScience* (1993), p. 43.

19) Intelligent Design 이론에 관해서는 *Mere Creation: Science, Faith & Intelligent Design* (InterVarsity Press, 1998)을 보라. 이 논문집은 1996년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되었던 Intelligent Design 학술 모임에서 발표된 글들 중 대표적인 것 18편을 모은 것이다.

20) 이러한 메커니즘의 구체적 예는 Michael J. Behe, *Darwin's Black Box: The Biochemical Challenge to Evolution* (New York: The Free Press, 1996), ch. 3-7을 보라.